

큰스님 수행한담

“시비 다툼 끊어주세요”



‘자기’라는 것은 왜소해 보여도 실은 우주보다 크고 넓어요 시공초월한 영원한 생명이죠

를 자초했지 뭐니까. 배가 뒤집혔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죽을 지경인 나를 주위 사람들이 건져줘 겨우 살아난 기억이 있었어요. 우에다가 후배 스님이긴 하지만 그 사건 덕분에 정이 더욱 돈독해졌고, 나이 든 지금까지도 귀한 추억거리로 남아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은 이제 대부분 죽고 2명만이 남아 있지만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타산지석이 돼 간접적으로 깨우침을 주었고, 때로는 파급한 지적으로 나의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심(下心)하며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 또한 깨달음의 경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 1994년 4월 29일 일본 교토(京都)에 위치한 법회중 대본산 본봉사에서 일본 법회중으로부터 승정 호를 받고 있는 혜승스님(사진 가운데).

‘자아 발견’은 먼저 인간답게 사는데서 믿고 배우고 실천해야 진정한 불제자

이 내 법계를 인정했다는 것이니 이제 막 출가한 스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지요. 얼마전 한 스님이 “요즘 출가하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혹독하게 행자생활을 하지 않아서인지 사미계, 비구계도 받지 않은 사람이 벌써 중입해 하고 건방을 떨더라면서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꿀안 꿀이지 뭐냐”며 개탄스러워 하더군요. 사실 요즘 절에서는 실제로 ‘행자조실’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니 그 스님 말씀이 헛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리고 인간이 먼저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 없이 머리 깎고, 띠를 두거나 입었다고 해서 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중노릇 흉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기계문명과 극도로 분업화된 사회조직의 현실, 공진만능주의적 상태, 해일 수 없이 급변하는 사회현상에서 인간관계는 복잡해지고 만연된 불신 풍조에서 현대인은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부처님의 말씀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부처님 말씀은 크게는 ‘자아의 발견’이라고 하는 대도(大道)의 성취, 탐진치를 버리는 기초적인 인간본성 발견, 선악의 구분 등으로 무명에서 밝은 빛을 얻어 지혜롭고 맑게 살 수 있는 진리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림 속의 떡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배가 부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달리 불교는 지식보다 아는 만큼 실천하고 이해하여 ‘지혜’를 체득하는 종교입니다. 미치광이라도 즐겨 배우기를 힘쓰면 성인이 될 것이고, 성인이라도 배우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침의 혁명화 간결화 「하나한」. 어떻게 구름사이로 하늘 본 것을 개침이라 할 수 있는가? 구름같은 법과 하늘사는 법을 익혀야 진정한 개침 아닌가? 5박 6일만에 존재의 꽃을! 花微笑와 悟道頌과 自然舞로 즐겁게!

왕토 흙벽돌 기계.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30x14x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문의처: 400077-0037300 봉송왕토마을

나의 수행일기. 안영일 (부산진구 구청장). 편모슬하이긴 하지만 지극정성으로 자식의 성공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어머니 계시고, 평생의 반려자로 내조에 빠짐없는 아내가 있다. 그러나 밖에서 일어나는 일거수 일투족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평소 말이 없는 나를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부처님처럼 따뜻한 자비로 품어주셨다. 그러나 물가에 내놓은 아이 돌보듯 염려를 놓지 못하셨다. 천태종 신도인 아내는 힘들 때 보라며 불교 홍보물을 던지시 가져다 주기도 했다. 불교에 귀의하기 전에는 홍보물을 봐야 한다는 마음조차 내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의 인연인 것을 터득한 것은 지금부터 22년 전이다. 불혹을 바라보며 가정사와 사업 등에 혼신

(魚山) 교육자 양성 전문교육 제1기 佛敎儀式(梵音·梵唄)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1.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식,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2. 중급과정(6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구병시식등. 3. 연구과정(6개월):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나비춤, 육법공양등 각종행사 및 의식에 동참할 수 있음.